



# 내장재의 불연화가 대형화재 미연방지



임 병 희

(내무부 소방국 예방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전기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하며 그 어느 곳이든지 인간의 힘이 미치고 있는 곳이면 고루 이용되고 있는 것이 전기라고 하겠다. 우리들의 생활수준향상과 날로 변모하는 경제적 발전으로 전기의 수요량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고 이에 수반하여 각종 재해요인 역시 늘어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그 에너지원으로서 전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 전기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반면 잘못 다룸으로써 크나큰 재앙을 안겨다주는 경우도 허다하게 보아왔다.

전기히터, 전기곤로, 전기다리미등과 같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좋은 문명의 이기를 잘못 다루거나 또는 자칫 잘못판단으로 불량제품을 구입, 사용하는데서 전기화재를 유발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문명의 이기라는 것이 재앙을 유발하게 된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내무부 화재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 원인에 있어서 전기가 단연 첫번째 자리를 지켜온 지도 꽤 오래되었다. 이는 그만큼 우리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전기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다.

'86년말을 기준으로하여 1년간의 화재통계를 간략히 분석해 보면, 총 화재 발생 8천4백53건중 전기로인한 화재가 2천7백43건(32%)으로 1위, 그 다음의 원인이 담배로 9백75건(11.5%)인 바, 1위와의 발생건수 격차는 무려 3배나 되는 수치라 하겠다.

인명피해에 있어서는 총 1천1백88명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2백7명(17.4%)으로 방화(2백55명), 유류(2백27명)에 이어 3번째로 많은 피해이다.

화재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모든 물건은 다 타버리고 잿더미가 되어 흔적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하에서 밝혀진 그 원인이 얼마나 정확한 조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가늠하기 어렵겠으나 그래도 목격자와 참고인 진술, 그리고 현장 상황등을 토대로하여 작성된 것이니 그대로 믿기로 하고, 충분한 과학적인 뒷받침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차분히 조사해 나간다면 보다 더 정확

한 원인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감식인원과 절대인력이 부족한 현재의 일선 소방관서의 제 여건,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액을 산정도 하기전에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독촉하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다.

전기화재는 그 발생양상이 여러형태일 뿐 아니라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원인을 세분화한다는 것은 참으로 곤란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전기화재가 많이 발생하였던 주요발화원인을 추적해본다면 대부분의 경우가 사용자의 미숙과 부주의 그리고 용량이 적은 전선에 과도한 부하물을 걸었을 때 또는 정격 용량의 퓨즈를 사용치 아니한때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불리한 조건하에서 하청받은 공사를 흑자로 만들기 위해 관계규정과 사회 공인으로서의 자기 양식을 저버린 채 시공하는 일부 전기공사업자의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가정이나 가내공업 규모의 작은 공장에서는 제멋대로 비닐 코드선을 연결해서 어지럽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보게 된다. 또 콘센트 하나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전기기구를 문어발식 형태로 연결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흔하다. 이와같은 행위는 언젠가는 전기합선이나 또는 과부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위험요인이 되는 것이다.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일조유사시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예방대책으로서는 자기소유 또는 자기가 관리하고있는 건물이나 시설등에 관하여 화재에

방상 필요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다. 안전점검이란 화재발생이 예상되는 취약부분을 조기에 발견, 필요조치를 행함으로써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을 대상으로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절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을 실시한다면 법정검사시 손길이 일일이 미치지 못하는 내실등 사각지대에 까지도 점검이 가능해지므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기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최소한 준수하여야 할 제 사항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① 절연저항측정은 최소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②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선의 용량이 부하를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③ 1개의 콘센트에 과도한 부하물이 되는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동시에 사용치 말아야 할 것이다.
- ④ 퓨즈는 반드시 정격용량의 규정 퓨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전기용품을 구입할 때는 형식승인이나 검사를 필한 “전”자나 “검”자 또는 KS마크 및 제조업체명을 밝힌 상품을 반드시 구입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⑥ 전열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주위에 가연물이 없는 장소 또는 완전하게 제거한 후 사용토록 한다.
- ⑦ 플러그를 뺄 때는 전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반드시 플러그 몸체를 잡고 빼어야 한다.

⑧ 전열기구를 사용하던중 정전이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빼어 놓아야 한다.

⑨ 전열기의 코드는 반드시 천으로 짠 고무전선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화재예방을 위하여는 소방당국은 물론 유관단체의 깊은 관심과 보도매체를 통한 끊임없는 대민홍보도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국민모두가 경각심을 높이고 불조심을 생활화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굳게 다져져 있는가에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내장재의 불연화만이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기억에도 새로운 '84. 1. 14. 부산직할시 부전동 소재 대야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1백6명(사망38명, 부상68)이라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전국 소방관서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도, 그리고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호텔이나 유흥업소 등 주요대상물의 내장재를 불연화 또는 난연재로 개수함으로써 그 이후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만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만을 보더라도 내장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간단하고도 쉬운 눈앞의 일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또는 잠시 잃어버리거나 가장 빈틈없이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하여 게을리함으로써 참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번의 조그마한 과실이 커다란 재난을 불러오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고 또한 보고있기 때문이다. ☹